

## 3·15민주의거 43주년 기념 메시지

존경하는 마산시민 여러분,

오늘은 자유당 정권의 독재에 항거하여 마산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분연히 일 어섰던 3·15민주의거가 마흔세 돌을 맞는 날입니다.

이 뜻 깊은 날 저는 먼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여러분과 함께 되새기고자 합니다. 아울러 5년간의 성역화 사업 끝에 3·15 묘지가 명실상부한 국립묘지로 거듭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15의거는 '참여정부'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그날의 정신은 4·19혁명으로 불타올랐고,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참여정부'를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참여정부'는 3·15의거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꿈을 현실로 이루어 낼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도 어렵습니다. 선진국들은 끝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후발국들은 빠른 속도로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과 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오늘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때, 우리 앞에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펼쳐질 것입니다. 다가올 동북아 시대의 중심국가로 세계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마산시민 여러분,

3·15정신은 끊임없는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그 정신을 되새기면서 통합과 개혁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